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사업성과: 가족기업 관점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 s Policy Fund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Enterprises

전덕영*

Jeon, Deok You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사업성과를 분석함에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자 1,375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사업자, 사업자의 높은 연령, 음식점 업종이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총자산이 높을수록, 임차료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둘째, 남성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동부 지역인 경우 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총자산이 높을수록, 임차료가 높을수록 순이익에 긍정적이었다. 셋째, 남성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동부 지역인 경우 투자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임차료가 높을수록 투자수익률에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사업자 중심의 경영지원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행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의 비즈니스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상권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마케팅전략 등 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공급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가족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성과

* 서울신용보증재단 책임전문위원, 경영학 박사

I. 서 론

선진국은 가족기업 유형인 생계형 소공인의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도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소공인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소공인은 제조업의 뿌리산업 업종과 관련이 깊다. 소공인의 활동을 강화하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최태환·윤병섭, 2015). 소공인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몰림현상이 있다. 치열한 경쟁과 높은 타인자본, 즉 과도한 부채는 낮은 수익성을 가져온다(김일광, 2018). 창업자에게 사업실패의 경험은 재창업의 동기부여와 자산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업실패의 부담감은 재창업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하고 있다(김수연 외,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가족기업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과, 만족도, 제도개선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Suzuki and Okamuro, 2017; Mateut, 2018; Le and Needham, 2019; 유승호 외, 2015; 이영주·양영석, 2018; 김영문·강태균, 2019; 남기정 외, 2019; 심상필·장운옥, 2019; 안태욱 외, 2019). 가족기업 관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정책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가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규모가 큰 중소기업 이상이 주류를 이루어져 있으며(남영호, 문성주, 2006), 소상공인 가족기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남영호(2006)는 가족기업은 아주 중요한 연구테마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독립적인 기업 대부분은 가족기업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족기업 오너의 경영 목적은 비 가족기업 경영자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로,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과는 다르게 경영되어지기 때문이다. 넷째로, 가족기업의 오너는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승계 하려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다섯째로, 정책입안자는 가족기업의 성과가 비가족기업의 성과보다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알고 싶어 한다. 또한 가족기업은 경쟁력 제고, 부의 창출, 고용확대 등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책입안자는 가족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을 줄 특별한 지원 방안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가족경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가족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실증연구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가족기업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를 통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정부 정책 반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있어 연구의 흥미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 관점에서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을 분석함에 있다.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을 밝힌다면 정부의 두드러진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미흡한 요인을 보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 대비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소상공인 가족기업 관점에서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를 다루는 차별성이다. 가족기업 선행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이상의 관점에서 가족기업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소상공인 가족기업의 관점에서 초기연구를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변수의 차별성이다. Suzuki and Okamuro(2017), Le and Needham(2019), 김영문·강태균(2019), 김예정(2019), 박희상·김규배(2019), 정경희(2020)는 경영성과, 창업의지, 만족도, 성장성 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업성과 변수는 소상공인이 가장 중요시 하는 객관적 성과로서 정책자금 지원 정책적 목적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변수이다. 셋째, 자료조사 방법의 차별성이다. Le Trinh(2019), 이영주·양영석(2018), 김예정(2019), 안태욱 외(2019)는 설문조사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SCGF)으로부터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실질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넷째, 연구기간의 차별성이다. Mateut(2018)는 3년(2007~2009년), Rusu and Roman(2020)은 9년(2007~2016년), 이인화·이상직(2018)은 1년(2015년)에 비해 본 연구는 최근 실증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인 4년(2016~2019년)의 자료를 반영한 최근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한 차별성이 있다. 다섯째, 분석방법의 차별성이다. Karadag(2017), Suzuki and Okamuro(2017), Le Trinh(2019), 유승호 외(2015), 김영문·강태균(2019), 안태욱 외(2019) 등은 분산분석, 로짓분석, 구조방정식모델, 회귀분석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술통계량,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해 정제한 분석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요인이 사업성과에 기여하는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선행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금 지원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가족기업의 관점에서 본 연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한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정책 중요성과 소상공인 가족기업의 연구발전과 정책지원을 통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선행연구

1. 소상공인 가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이다.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소상공인은 소규모로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소상공인은 1인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업종에서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의 Westhead 등(1998)은 ① 가족구성원이 기업 소유권을 50% 이상 소유 ② 기업이 가족구성원이 의해 경영에 참여 ③ 2세대 이상 세대 간 소유권 승계가 이루어진 기업 등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Smith & Amoako-Adu(1999), Anderson & Reeb(2003), Barth, Gulbrandsen, & Schone(2005)은 창업자 가족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고윤성(2016)은 가족기업은 ① 가족 구성원의 지분율이 20% 이상 ② 2명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기업경영에 참여 ③ 2세대 이상 경영승계가 이루어진 기업 중에서 한 가지 기준에 충족하면 가족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가족기업을 창업(entrepreneurship)의 한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기업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이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기업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한다. 가족기업을 기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 가족기업(large family business), 중규모 가족기업(medium family business), 소규모 가족기업(small family business)로 구분하기도 한다(남영호, 2006).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소규모 가족기업으로 해당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백년가게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 받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점포이다. 백년소공인이란 업력이 15년 이상 된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 받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이다. 이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00년 이상 존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교육, 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우대 등의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Rusu and Roman(2020)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EU 18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접근성을 연구하였다. 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창업에 매우 중요하고 용이한 금융자원 확보가 새로운 사업을 장려한다고 주장하였다. Mateut(2018)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30여개 국가의 재무자료를 분석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금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밝혔다. 금융제약이 있는 기업이 금융제약이 없는 기업보다 사업성고가 낮음을 실증하였다. 유시용(2009)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이 신용할당을 경험하게 하므로 연성정보를 통해 관계금융으로 대체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예정(2019)은 자금조달이 사업능력과 재무성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자금조달은 사업능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재무성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서충원·신연수(2016)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효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서울, 인천, 경남, 부산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금융과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공급을 증가시키고 부실보증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보여 준다는 실증이다. 최태환·윤병섭(2015)은 지역소공인 육성방안을 연구해 일자리창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소공인의 대폭적 정책자금 지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공인의 정책자금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보비대칭성을 보완하는 정량적, 정성적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 관계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강조하였다. Peter et al.(2018)은 자금지원이 재무성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정부의 자금지원이 금융제약의 위험을 낮추고 기업 활동과 수익증대에 기여하며, 혁신을 촉진한다는 주장이다. 즉 창업과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만들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자금지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자금의 전략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신동진 외(2019)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재무 요인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소기업에서 총자산이익률의 내부자금은 기업 성장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단기차입금만 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남기정 외(2019)는 창업보증 지원받은 기업을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양분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기업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신용등급, 동업종 종사 경험, 거주주택 보유를 주장하였다. 즉 사업자의 신용등급, 근무경험, 자산이 창업기업 경영에 중요하므로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창업보증을 할 때 신용평가시스템에 이를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높은 신용등급, 동종사업에 대한 이해, 많은 보유자산이 채무이행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3. 소상공인 사업성과

Ngek(2016)는 금융지식과 성과 사이 관계를 검증하였다. 금융지식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기업가가 필수적으로 금융지식을 이해하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김영문·강태균(2019)은 소상공인의 경영관리능력, 경영서비스 수용태도, 신용상태 등의 요인이 경영성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관리능력, 경영서비스 수용태도는 매출액, 순이익, 경영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소상공인의 신용상태는 매출액, 순이익, 경영만족, 경영지속기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혁·유영진(2019)은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고,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외식창업 성공요인의 입지, 시설, 서비스, 상품 요인은 경영성과,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값이 있었고,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 외식창업 성공요인에서도 매개효과가 있었다. 원종하·정대현(2017)은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과 경영성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상공인 기업가특성 중에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직관의 순서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취 욕구를 고취시키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Karadag(2017)은 업력, 업종, 기업가의 교육수준 등의 차이가 나타내는 재무성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업력, 기업가의 교육수준은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업종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광(2018)은 국내 소상공인 기업 현황과 재무특성을 정부와 카드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창업후의 5년 생존율은 26.9%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후 5년 이내에 창업자의 3/4 정도가 폐업하는 것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도 수익성과 생존율에 격차가 있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덕영·윤병섭(2020)은 소상공인 보증지원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보증지원 후가 보증지원 전보다 일자리 수에 기여하고 있어 소상공인 보증지원 정책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안태욱 외(2019)는 창업자 역량특성과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창업자 역량특성인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은 창업지원제도에 유의한 양(+)의 값이 있었다. 창업자 역량인 기업가적 역량,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은 창업성과에 유의하였고,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호 외(2015)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가 지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서비스의 자금지원, 경영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은 지원만족에 긍정적인 양(+)의 영향이 있었다.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희(2020)는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해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영향에 있어서 창업자금, 멘토링은 매출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창업교육은 매출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대체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한 제도로서 그 성과가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러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특히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은 경영성과를 측정할 만큼의 매출액, 순이익 등의 계량적 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소상공인 가족기업의 관점에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 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성과를 실질자료를 기반으로 그 대안을 제시한다. <표 1>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변수별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표 1> 국내외 선행연구 변수요약

연구자	연구국가	연구대상	연구기간	표본수	자료	분석방법	선행연구가 채택한 변수					
							정책	창업	자금	교육	컨설팅	성과
Karadag(2017)	터키	소기업	2017	188	설문조사	분산, Scheffe				O		
Le et al.(2019)	캐나다	소상공인	2019	3	인터뷰, 관찰	질적연구						
Le Trinh(2019)	베트남	소기업	2018	320	설문조사	구조방정식	O	O	O			
Mateut(2018)	동유럽 등	기업	2007-2009	11,998	BEEPS데이터	상관, 프로빗	O		O			
Rusu et al.(2020)	유럽	소기업	2007-2016	-	패널 데이터	고정효과모델		O	O			
Suzuki et al.(2017)	일본	창업자	2011	448	설문조사	상관, 로짓	O	O				
김영문 외(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2019	165	설문조사	요인, 회귀	O		O		O	O
김예정(2019)	대한민국	창업자	2019	200	설문조사	요인, 경로		O	O			O
남기정 외(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2014	2,826	창업보증자료	로지스틱회귀	O	O	O			
박희상 외(2019)	대한민국	소기업	2019	332	설문조사	요인, 경로		O		O	O	O
심상필 외(2019)	대한민국	소기업	2013-2015	226	강원도산진원 자료	차이, 회귀	O		O			O
안태옥 외(2019)	대한민국	소기업	2018	361	설문조사	요인, 구조방정식	O	O	O		O	
원종하 외(2017)	대한민국	소상공인	2015	127	설문조사	요인, 상관, 회귀						O
유승호 외(2015)	대한민국	소상공인	2015	196	설문조사	요인, 회귀	O		O	O	O	
이영주 외(2018)	대한민국	창업기업	2018	122	설문조사	t-test, IPA, 회귀	O	O	O	O	O	O
이인화 외(2018)	대한민국	소기업	2005-2015	2,059	HCCP자료	동태패널, 2SLS				O		O
이희혁 외(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2018	301	설문조사	요인, 회귀		O				O
정경희(2020)	대한민국	창업기업	2019	297	실제데이터	회귀, 위계적회귀	O	O	O	O	O	O
본연구	대한민국	소상공인	2016-2019	1,375	SCGF데이터	상관, 분산, 회귀	O	O	O	O	O	O
합계							11	11	12	7	7	10

Ⅲ. 연구설계

1. 소상공인 가족기업 현황

<표 2> 소상공인 가족기업 현황

구분	항목	빈도	비율(%)	구분	항목	빈도	비율(%)
유형별	백년가게	1313	61.3	서울 특별 시 지역 구별	강남구	17	6.1
	백년소공인	828	38.7		강동구	5	1.8
업종	음식점업	854	39.9		강북구	8	2.9
	도소매업	314	14.7		강서구	4	1.4
	서비스업	102	4.8		관악구	8	2.9
	제조업	868	40.5		광진구	11	3.9
	건설업, 농업, 축산업	3	0.1		구로구	6	2.1
					금천구	28	10.0
전국 지역 별	강원도	117	5.5		노원구	5	1.8
	경기도	401	18.7		도봉구	5	1.8
	경상남도	159	7.4		동대문구	12	4.3
	경상북도	158	7.4		동작구	6	2.1
	광주광역시	97	4.5		마포구	7	2.5
	대구광역시	115	5.4		서대문구	6	2.1
	대전광역시	100	4.7		서초구	9	3.2
	부산광역시	132	6.2		성동구	9	3.2
	서울특별시	280	13.1		성북구	14	5.0
	세종특별자치시	7	.3		송파구	9	3.2
	울산광역시	29	1.4		양천구	4	1.4
	인천광역시	85	4.0		영등포구	33	11.8
	전라남도	106	5.0		용산구	4	1.4
	전라북도	133	6.2		은평구	9	3.2
	제주특별자치도	20	.9		종로구	28	10.0
	충청남도	90	4.2		중구	29	10.4
	충청북도	112	5.2		중랑구	4	1.4
	총계	2,141	100.0		총계	280	100.0
	N	2,141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www.sbiz.or.kr), 2022. 10.20.

국내의 소상공인 가족기업 현황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100년 이상 기업으로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기업을 통해 파악하였다. 백년가게는 업력이 30년 이상 된 점포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사업자로서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의 업종이 해당된다. 백년소공인은 업력이 15년 이상 된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사업자로서 제조업 업종이 해당된다. <표 2>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인증받은 2,141개 사업자를 정리한 것이다. 유형별로 백년가게는 1,313개, 백년소공인은 828개의 사업체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280개로서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영등포구 33개, 중구 29개, 금천구와 종로구가 각각 28개로 소상공인 가족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지역 경제의 비중

<표 3>은 2017년도 우리나라 사업체 수를 전국, 서울로 세분하고 서울지역 경제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지역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745,746개 업체, 4,731,181명으로 우리나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20.7%, 26.7%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은 1,810조 7,428억 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35.4%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신생기업 수는 194,876개 업체로서 전국 소상공인의 21.3%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신생기업 수 등에서 서울지역이 여타지역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서울지역의 일자리창출 역할과 경제적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서울지역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 1인당 매출액에서도 알 수 있다.

<표 3> 서울지역 경제의 비중

구분		사업체 수(A)		종사자 수(B)		매출액(C)	
		수량(개)	비중	인원(명)	비중	금액(억원)	비중
전국 (a)	소상공인	3,117,944	86.5	6,158,732	34.8	6,195,561	12.1
	소기업	3,514,554	97.5	10,785,399	60.9	11,066,159	21.7
	중소기업	3,601,617	99.9	14,485,432	81.8	21,494,498	42.1
	전체	3,605,700	100.0	17,708,429	100.0	51,087,983	100.0
서울 (b)	소상공인	627,963 ¹	84.2	1,203,088	25.4	1,315,362	7.3
	소기업	718,540	96.4	2,147,680	45.4	2,220,972	12.3
	중소기업	744,191	99.8	3,338,201	70.6	5,186,863	28.6
	전체	745,746 ²	100.0	4,731,181	100.0	18,107,428	100.0
서울 지역 비중 (b/a)	소상공인	20.1		19.5		21.2	
	소기업	20.4		19.9		20.1	
	중소기업	20.7		23.0		24.1	
	전체	20.7		26.7		35.4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9); 통계청(2020).

<표 4>를 보면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이 209,465천 원으로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 198,707천 원보다 높다. 그리고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109,332천 원으로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 1인당 매출액 100,598천 원보다 높다. 이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전국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국가경제에서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서울지역 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

구분		사업체당 매출액(C/A)		종사자 1인당 매출액(C/B)	
		금액(천원)	비중	금액(천원)	비중
전국(a)	소상공인	198,707	14.0	100,598	34.9
	소기업	314,867	22.2	102,603	35.6
	중소기업	596,801	42.1	148,387	51.4
	전체	1,416,867	100.0	288,495	100.0
서울(b)	소상공인	209,465	8.6	109,332	28.6
	소기업	309,095	12.7	103,413	27.0
	중소기업	696,980	28.7	155,379	40.6
	전체	2,428,096	100.0	382,725	100.0
서울 지역 비중 (b/a)	소상공인	105.4		108.7	
	소기업	98.2		100.8	
	중소기업	116.8		104.7	
	전체	171.4		132.7	

자료 : <표 3>을 계산.

3.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지역 소재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부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이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창업자 1,375개이다. 기존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 최초 방문하여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자이다. 표본에 대한 분석 자료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창업자 성별은 남성 745명(54.2%), 여성 630명(45.8%)으로 나타났다. 창업자 연령은 30세 미만 147명(10.7%), 40세 미만 562명(40.9%), 50세 미만 373명(27.1%), 60세 미만 218명(15.9%), 60세 이상 75명(5.5%)이다.

<표 5> 분석자료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745	54.2	업종	음식점업	549	39.9
	여성	630	45.8		도소매업	356	25.9
연령	30세 미만	147	10.7		서비스업	415	30.2
	40세 미만	562	40.9		제조업	55	4.0
	50세 미만	373	27.1	지역	서울동부	325	23.6
	60세 미만	218	15.9		서울중부	416	30.3
	60세 이상	75	5.5		서울남부	323	23.5
총자산	3,000만 원 미만	206	15.0		서울서부	311	22.6
	5,000만 원 미만	331	24.1	권리금	1,000만 원 미만	877	63.8
	8,000만 원 미만	381	27.7		2,000만 원 미만	174	12.7
	10,000만 원 미만	132	9.6		3,000만 원 미만	99	7.2
	10,000만 원 이상	325	23.6		5,000만 원 미만	123	8.9
보증금	500만 원 미만	59	4.3		5,000만 원 이상	102	7.4
	1,000만 원 미만	142	10.3	임차료	50만 원 미만	139	10.1
	2,000만 원 미만	425	30.9		100만 원 미만	379	27.6
	3,000만 원 미만	312	22.7		200만 원 미만	464	33.7
	3,000만 원 이상	437	31.8		500만 원 미만	345	25.1
	N	1,375	개		500만 원 이상	48	3.5

3. 회귀분석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 관점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서울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에는 성별, 연령, 업종, 지역, 총자산, 보증금, 권리금, 임차료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인 사업성과에는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다.

$$SAL = \alpha_0 + \beta_1 SEX_1 + \beta_2 AGE_2 + \beta_3 IND_3 + \beta_4 ARA_4 + \beta_5 CAP_5 + \beta_6 DPT_6 + \beta_7 PMM_7 + \beta_8 RNT_8 + \epsilon_i$$

.....(식 1)

$$ICM = \alpha_0 + \beta_1 SEX_1 + \beta_2 AGE_2 + \beta_3 IND_3 + \beta_4 ARA_4 + \beta_5 CAP_5 + \beta_6 DPT_6 + \beta_7 PMM_7 + \beta_8 RNT_8 + \epsilon_i$$

.....(식 2)

$$ROA = \alpha_0 + \beta_1 SEX_1 + \beta_2 AGE_2 + \beta_3 IND_3 + \beta_4 ARA_4 + \beta_5 CAP_5 + \beta_6 DPT_6 + \beta_7 PMM_7 + \beta_8 RNT_8 + \epsilon_i$$

.....(식 3)

여기서,

<i>SAL</i>	: 매출액(월평균 매출액)(log)
<i>ICM</i>	: 순이익(월평균 순이익)(log)
<i>ROA</i>	: 투자수익률(%)(년 순이익 대 총자산)
<i>SEX</i>	: 성별(더미)(남성: 1, 여성: 0)
<i>AGE</i>	: 연령(log)
<i>IND</i>	: 업종(더미)(음식점업: 1, 음식점업 이외: 0)
<i>ARA</i>	: 지역(더미)(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각각: 1, 기타: 0)
<i>CAP</i>	: 총자산(창업소요자금)(log)
<i>DPT</i>	: 보증금(log)
<i>PMM</i>	: 권리금(log)
<i>RNT</i>	: 임차료(월 임차료)(log)
ϵ_i	: 오차항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은 (식 1)과 같다. 둘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은 (식 2)와 같다. 셋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투자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은 (식 3)과 같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로는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의 사업성과를 사용하였다. 기업의 사업성과는 정량적 수치로 하여 재무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Venkatraman and Ramanujam, 1986).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는 주로 매출액과 순이익으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선명옥·이우창, 2013). 본 연구의 매출액은 정책자금 지원 받은 기업의 월 평균 매출액을 의미한다. 매출액은 실수(實數)로서 이례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순이익은 정책자금 지원 받은 기업의 월 평균 순이익을 의미한다. 순이익은 실수(實數)로서 이례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투자수익률은 년 순이익을 창업소요자금인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이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업종, 지역, 총자산, 보증금, 권리금, 임차료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정책자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성별을 남성 1, 여성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사업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연령은 소상공인의 연령으로 실수(實數)이며 이례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연령과 사업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업종은 소상공인의 업종으로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다. 서울지역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은 경쟁

이 심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창업에 있어 음식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본 연구는 음식점업 1, 음식점업 이외 업종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며 사업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25개 자치구로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25개 자치구를 서울동부(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서울서부(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울남부(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서울중부(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의 4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를 각각 1로 하고, 그 이외 지역을 0으로 하는 4개 지역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 더미변수와 사업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총자산은 소상공인의 창업소요자금으로 창업시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비, 상품비 등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소요자금은 총자산으로 실수(實數)이며 이레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총자산과 사업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보증금은 사업장 임차계약서의 보증금으로 실수(實數)이며 이레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보증금과 사업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권리금은 사업장 양수도 계약서의 권리금으로 실수(實數)이며 이레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권리금은 사업성과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임차료는 사업장 임차계약서의 월 임차료로서 실수(實數)이며 이레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log값으로 한다. 임차료와 사업성과의 사이에 양(+)의 관계를 예측한다. 주요변수의 지수 또는 계산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변수의 지수 또는 계산식

구분		지수 또는 계산식	표본실측지표
종속 변수	매출액	월 평균 매출액	실수(實數), log
	순이익	월 평균 순이익	실수(實數), log
	투자수익률	년 순이익(월 순이익*12)/총자산	%, 비율
독립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더미변수
	연령	나이(세)	실수(實數), log
	업종	음식점업(1),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0)	더미변수
	지역	서울동부(1), 서울서부+서울남부+서울중부(0) 서울서부(1),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중부(0) 서울남부(1), 서울동부+서울서부+서울중부(0) 서울중부(1), 서울동부+서울서부+서울남부(0)	더미변수
	총자산	창업소요자금	실수(實數), log
	보증금	사업장 보증금	실수(實數), log
	권리금	사업장 권리금	실수(實數), log
	임차료	사업장 월 임차료	실수(實數), log

주) 종속변수의 매출액, 순이익은 정책자금 지원 후의 성과로, 정책자금 지원 후 1년 이내에 사업성과를 관리하는 사후관리 시점의 실수(實數)임.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19,150천 원, 순이익은 3,941천 원이며, 투자수익률은 93.71%로 나타났다.

<표 7> 기술적 통계 요약

변수	단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매출액	천원	1,375	19,150	20,522	1,000	250,000
순이익	천원	1,375	3,941	2,508	200	30,000
투자수익률	%	1,375	0.9371	0.8997	0.0400	9.3333
성별	더미	1,375	0.54	0.50	0.00	1.00
연령	세	1,375	41.05	10.35	20.00	79.00
업종	더미	1,375	0.40	0.49	0.00	1.00
지역	더미	1,375	0.24	0.43	0.00	1.00
총자산	천원	1,375	74,825	61,431	4,000	600,000
보증금	천원	1,375	23,254	20,808	0	200,000
권리금	천원	1,375	13,340	29,061	0	440,000
임차료	천원	1,375	1,637	1,448	100	15,000

주 1) 매출액, 순이익, 연령, 총자산, 보증금, 권리금, 임차료는 log를 실수로 변환.

2) 지역은 서울동부 지역을 1, 서울동부 이외 지역을 0으로 하여 반영.

2. 상관분석

본 연구변수의 상관분석은 <표 8>과 같다. 매출액은 순이익, 투자수익률, 성별, 업종, 총자산, 임차료 사이에 양(+)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순이익은 투자수익률, 성별, 업종, 총자산, 임차료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수익률은 성별, 지역 사이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VIF는 1.973이하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표 8> 상관분석

	<i>SAL</i>	<i>ICM</i>	<i>ROA</i>	<i>SEX</i>	<i>AGE</i>	<i>IND</i>	<i>ARA</i>	<i>CAP</i>	<i>DPT</i>	<i>PMM</i>	<i>RNT</i>	<i>VIF</i>
<i>SAL</i>	1											종속변수
<i>ICM</i>	.789***	1										종속변수
<i>ROA</i>	.212***	.361***	1									종속변수
<i>SEX</i>	.179***	.143***	.097***	1								1.043
<i>AGE</i>	-.007	-.034	-.021	-.185***	1							1.049
<i>IND</i>	.174***	.075***	-.230***	.028	.014	1						1.185
<i>ARA</i>	-.037	-.002	.075***	-.072***	.065**	-.024	1					1.033
<i>CAP</i>	.411***	.322***	-.607***	-.005	.006	.295***	-.081***	1				1.973
<i>DPT</i>	.030	.041	-.336***	-.021	.028	.175***	-.041	.358***	1			1.236
<i>PMM</i>	.009	-.011	-.248***	-.042	.077***	.315***	.044	.234***	.161***	1		1.161
<i>RNT</i>	.350***	.309***	-.331***	.003	-.050*	.193***	-.145***	.669***	.406***	.115***	1	1.970

주 1) *SAL*: 매출액(월 평균매출액)(log), *ICM*: 순이익(월 평균순이익)(log), *ROA*: 투자수익률(%)(년 순이익 대 총자산), *SEX*: 성별(더미변수)(남성: 1, 여성: 0), *AGE*: 소상공인의 연령(log), *IND*: 업종(더미변수)(음식점업: 1, 음식점업 이외 업종: 0), *ARA*: 지역(더미변수)(서울동부: 1, 서울동부 이외 지역: 0), *CAP*: 총자산(창업소요자금)(log), *DPT*: 보증금(log), *PMM*: 권리금(log), *RNT*: 임차료(사업장 월 임차료)(log).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3. 회귀분석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이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사업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표 9> 서울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SAL = \alpha_0 + \beta_1 SEX_1 + \beta_2 AGE_2 + \beta_3 IND_3 + \beta_4 ARA_4 + \beta_5 CAP_5 + \beta_6 DPT_6 + \beta_7 PMM_7 + \beta_8 RNT_8 + \epsilon_i$$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상수	2.891*** (11.017)	2.914*** (11.136)	2.892*** (11.059)	2.912*** (11.125)
<i>SEX</i>	.130*** (7.506)	.129*** (7.452)	.130*** (7.495)	.129*** (7.410)
<i>AGE</i>	.143* (1.775)	.147* (1.820)	.148* (1.838)	.149* (1.846)
<i>IND</i>	.066*** (3.514)	.066*** (3.492)	.065*** (3.443)	.066*** (3.480)
<i>ARA</i>	.023 (1.144)	.009 (.432)	-.043** (-2.138)	.010 (.530)
<i>CAP</i>	.401*** (10.389)	.400*** (10.350)	.401*** (10.392)	.402*** (10.410)
<i>DPT</i>	-.057*** (-6.370)	-.057*** (-6.331)	-.057*** (-6.343)	-.057*** (-6.367)
<i>PMM</i>	-.009*** (-3.585)	-.009*** (-3.519)	-.009*** (-3.609)	-.009*** (-3.529)
<i>RNT</i>	.201*** (5.690)	.198*** (5.609)	.203*** (5.758)	.195*** (5.518)
R ²	.247	.246	.249	.247
Adj R ²	.243	.242	.245	.242
F	56.043*** (.000)	55.857*** (.000)	56.584*** (.000)	55.872*** (.000)
표본수: 1,375	325	311	323	416

주 1) *SAL*: 매출액(월 평균매출액)(log), *SEX*: 성별(더미변수)(남성: 1, 여성: 0), *AGE*: 소상공인의 연령(log), *IND*: 업종(더미변수)(음식점업: 1, 음식점업 이외 업종: 0), *ARA*: 지역(더미변수)(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각각: 1, 그 이외 지역: 0), *CAP*: 총자산(창업소요자금)(log), *DPT*: 보증금(log), *PMM*: 권리금(log), *RNT*: 임차료(사업장 월 임차료)(log).

2) ()는 t-값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매출액에 대해 서울 지역별로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인 성별, 연령, 업종, 총자산,

임차료는 매출액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Fairlie and Robb(2009), Le Trinh(2019), Pinkovetskaia et al.(2019), Khan et al.(2020), 광규태 외(2018)의 연구를 지지한다. Khan et al.(2020)은 자원기반관점에서 금융과 성과 사이 관계를 검증하였다. Le Trinh(2019)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과 같은 정책에 집중하면 기업의 애로가 완화된다고 하였다. Pinkovetskaia et al.(2019)는 기업가적 자본이 소기업의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Fairlie and Robb(2009)는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 자본이 적고 동업종 경험으로 얻은 인적 역량이 다소 미흡해 사업 성과가 남성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동안 일하고 사업 목표의 선호도가 다르므로 이 특성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광규태 외(2018)는 정부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은 창업교육, 창업자금 융자,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이 성과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순이익에 대해 서울 지역별로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인 성별, 총자산, 임차료는 순이익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서울동부 지역이 순이익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tucki(2014), Angeles et al.(2019), Numan(2019), 채광기 외(2011), 남종석·김종호(2018), 전덕영·윤병섭(2020) 등의 연구를 지지한다. Angeles et al.(2019)은 금융에 대한 접근이 적절한 능력을 동반한다면 기업성과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Numan(2019)은 신용위험관리는 자산수익률과 자본이익률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cki(2014)는 기업의 업력이 증가하면 금융제약이 기업 생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라지지만 이익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전덕영·윤병섭(2020)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를 서울남부(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와 서울남부 이외로 나누어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서울남부가 서울남부 이외 지역보다 일자리 수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석·김종호(2018)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성장률, 영업이익성장률에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의 보증금과 권리금은 순이익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0> 서울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ICM = \alpha_0 + \beta_1 SEX_1 + \beta_2 AGE_2 + \beta_3 IND_3 + \beta_4 ARA_4 + \beta_5 CAP_5 + \beta_6 DPT_6 + \beta_7 PMM_7 + \beta_8 RNT_8 + \epsilon_i$$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상수	4.221*** (22.384)	4.257*** (22.604)	4.245*** (22.536)	4.258*** (22.603)
<i>SEX</i>	.071*** (5.680)	.069*** (5.537)	.069*** (5.568)	.069*** (5.556)
<i>AGE</i>	.016 (.271)	.021 (.366)	.022 (.371)	.020 (.343)
<i>IND</i>	.001 (.100)	.001 (.073)	.000 (.032)	.001 (.080)
<i>ARA</i>	.033** (2.257)	-.007 (-.470)	-.019 (-1.338)	-.005 (-.403)
<i>CAP</i>	.196*** (7.082)	.198*** (7.108)	.197*** (7.083)	.196*** (7.057)
<i>DPT</i>	-.027*** (-4.176)	-.027*** (-4.165)	-.027*** (-4.135)	-.027*** (-4.138)
<i>PMM</i>	-.005*** (-2.681)	-.005*** (-2.568)	-.005*** (-2.608)	-.005*** (-2.559)
<i>RNT</i>	.151*** (5.926)	.143*** (5.647)	.147*** (5.786)	.145*** (5.705)
R ²	.160	.157	.158	.157
Adj R ²	.155	.152	.153	.152
F	32.461*** (.000)	31.739*** (.000)	31.971*** (.000)	31.730*** (.000)
표본수: 1,375	325	311	323	416

주 1) *ICM*: 순이익(월 평균순이익)(log), *SEX*: 성별(더미변수)(남성: 1, 여성: 0), *AGE*: 소상공인의 연령(log), *IND*: 업종(더미변수)(음식점업: 1, 음식점업 이외 업종: 0), *ARA*: 지역(더미변수)(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각각: 1, 그 이외 지역: 0), *CAP*: 총자산(창업소요자금)(log), *DPT*: 보증금(log), *PMM*: 권리금(log), *RNT*: 임차료(사업장 월 임차료)(log).

2) ()는 t-값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투자수익률에 대해 서울 지역별로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서울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ROA = \alpha_0 + \beta_1 SEX_1 + \beta_2 AGE_2 + \beta_3 IND_3 + \beta_4 ARA_4 + \beta_5 CAP_5 + \beta_6 DPT_6 + \beta_7 PMM_7 + \beta_8 RNT_8 + \epsilon_i$$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상수	13.167*** (22.946)	13.296*** (23.211)	13.276*** (23.138)	13.292*** (23.181)
<i>SEX</i>	.169*** (4.452)	.162*** (4.279)	.163*** (4.301)	.164*** (4.318)
<i>AGE</i>	.147 (.834)	.167 (.946)	.166 (.938)	.161 (.909)
<i>IND</i>	-.042 (-1.024)	-.043 (-1.042)	-.044 (-1.067)	-.043 (-1.042)
<i>ARA</i>	.112** (2.532)	-.071 (-1.596)	-.016 (-.356)	-.022 (-.531)
<i>CAP</i>	-1.876*** (-22.234)	-1.865*** (-22.037)	-1.874*** (-22.162)	-1.876*** (-22.155)
<i>DPT</i>	-.138*** (-6.995)	-.139*** (-7.026)	-.137*** (-6.951)	-.137*** (-6.942)
<i>PMM</i>	-.021*** (-3.862)	-.021*** (-3.757)	-.021*** (-3.735)	-.020*** (-3.723)
<i>RNT</i>	.500*** (6.460)	.469*** (6.074)	.480*** (6.202)	.481*** (6.217)
R ²	.421	.420	.419	.419
Adj R ²	.418	.416	.415	.415
F	124.312*** (.000)	123.482*** (.000)	122.961*** (.000)	122.994*** (.000)
표본수: 1,375	325	311	323	416

주 1) *ROA*: 투자수익률(%)(년순이익 대 총자산), *SEX*: 성별(더미변수)(남성: 1,여성: 0), *AGE*: 소상공인의 연령(log), *IND*: 업종(더미변수)(음식점업: 1, 음식점업 이외 업종: 0), *ARA*: 지역(더미변수)(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각각: 1, 그 이외 지역: 0), *CAP*: 총자산(창업 소요자금)(log), *DPT*: 보증금(log), *PMM*: 권리금(log), *RNT*: 임차료(사업장 월 임차료)(log).

2) ()는 t-값임.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인 성별, 임차료는 투자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서울동부 지역이 투자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Le and Needham(2019), Angeles et al.(2019), Campbell and Park(2017), 김영문·강태균(2019), 전덕영·윤병섭(2019)의 연구를 지지한다.

Campbell and Park(2017)은 자원기반 관점과 이해관계자 접근방식으로 사회적 자본, 지적 자본과 같은 자원이 지역사회의 전략적 관리와 함께 소기업 성과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Le and Needham(2019)은 소상공인의 성공과 실패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인식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면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Angeles et al.(2019)은 소기업의 우선순위는 사업 확장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을 유지하는 지속가능성의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영문·강태균(2019)에 의하면 재무성과는 비즈니스의 결과를 회계적으로 표기한 화폐단위 측정지표이므로 소상공인의 사업 성과가 재무성과로 확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전덕영·윤병섭(2019)은 창업자금 지원요인인 임차료, 자기자본비율 등이 총자산회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어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지원은 긍정적 재무성과를 창출한다고 보고하였다.

4) 실무적 시사점

<표 12>는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 요인인 성별, 임차료가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 사업성과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지역을 보면, 서울동부가 순이익, 투자수익률에 양(+)의 값을, 서울남부가 매출액에 음(-)의 값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사업성과 요약

구 분	지역별	성별	연령	업종	지역	총자산	보증금	권리금	임차료
사업성과	전체	***							***
매출액	서울동부	***	+	***	+	+	-	-	***
	서울서부	***	+	***	+	+	-	-	***
	서울남부	***	+	***	-	+	-	-	***
	서울중부	***	+	***	+	+	-	-	***
순이익	서울동부	***	+	+	***	+	-	-	***
	서울서부	***	+	+	-	+	-	-	***
	서울남부	***	+	+	-	+	-	-	***
	서울중부	***	+	+	-	+	-	-	***
투자수익률	서울동부	***	+	-	***	-	-	-	***
	서울서부	***	+	-	-	-	-	-	***
	서울남부	***	+	-	-	-	-	-	***
	서울중부	***	+	-	-	-	-	-	***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첫째, 성별이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성사업자가 여성사업자에 비해 사업성과가 높음을 시사한다. 전덕영·윤병섭(2020)은 사업자의 이전 직장생활 등 경험은 금융자산과 인적자본 획득에 영향을 주며,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여성이 금융자산 확보에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경영의 경험이 적고 근무기간도 짧아 남성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역량 등 인적자본의 확보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성사업자의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중적인 경영지원 서비스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여성사업자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의 기회와 확대가 필요하다. ② 여성사업자가 동업종 경험과 기술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고령 사업자의 기술, 경험, 자원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기업승계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임차료가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의 사업성과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임차료가 높을수록 사업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차료는 유리한 상권, 입지, 면적, 층수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을수록 고객확보와 종업원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임차료가 높을수록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의 사업성과에 기여하므로 소상공인이 창업 전에 분석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상권분석 서비스로 사업장 확보가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점포매매가격,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상권분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상권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과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에서 서울동부는 순이익, 투자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울남부는 매출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서울지역에서 서울동부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중부 지역보다 순이익,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동부는 의류 제조, 신발 및 가방 제조, 약령 한방 산업, 기계장비제조, 성수 IT 산업 등의 특화된 산업이 존재하여 순이익과 투자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서울지역에서 서울서부, 서울중부가 서울남부 지역보다 매출액이 높다. 서울서부는 여의도 금융단지, 강서구 마곡단지, 구로구 디지털단지, 금천구 산업재공구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이 매출액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서울중부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귀금속 시장 등의 전문상가와 패션 산업, 인쇄 산업, 디자인 산업, 웨딩 산업, 관광 산업 등의 특화된 산업이 밀집해 있어 매출액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남부는 서비스 산업, 디자인 산업, 부동산 산업, R&D 산업 등의 특화된 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은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사업성과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기존창업자 1,375업체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인 성별, 연령, 업종, 총자산, 임차료는 매출액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성 사업자이거나, 사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음식점 업종인 경우, 총자산이 높을수록, 임차료가 높을수록 사업성과인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인 성별, 지역, 총자산, 임차료는 순이익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성 사업자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동부 지역인 경우, 총자산이 높을수록, 임차료가 높을수록 사업성과인 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요인인 성별, 지역, 임차료는 투자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성 사업자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동부 지역인 경우, 임차료가 높을수록 사업성과인 투자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과일 수 있는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의 변수를 선택하여 경제적 목표인 사업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우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기업이 성장하도록 정책적으로 보증을 지원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 이후에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연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무기반을 안정화시키고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관계금융은 연성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정책자금 지원 이후에도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성정보를 획득하여 관계금융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소기업 평가에서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 지표에 기초한 비재무적 모형의 평가가 중요하다. 정책자금 수요자는 소기업이 많으나, 소기업의 대부분은 재무제표가 거의 없으며 있어도 신뢰성이 낮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는데 충분한 축적정보가 부족하므로 연성정보

를 비롯한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지속해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첫째, 정책자금 지원 규모, 물가상승률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실질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어 재무제표 기반의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상공인 가족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해 나간다면 소상공인 가족기업의 연구 발전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기업 관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초기 연구를 다루었다. 소상공인 가족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소상공인 가족기업의 연구 발전과 가족기업 경영의 중요성을 제시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소상공인 가족기업과 비 가족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였다. 소상공인 형태를 가족기업과 비 가족기업으로 분류하여 소상공인 사업성과를 비교분석한다면 여러 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가족기업 정책지원 계획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가족기업과 비 가족기업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의 표본에 있어서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을 폭넓게 확대하여 분석을 할 수 있다면 학문은 물론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곽규태·천영준·최세경, 2018,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제13권 제2호, pp.83-103.
- 김수연·곽성열·정강욱, 2019, “회복탄력성이 기업실패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창업경험, 역할모델,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제42권 제1호, pp.57-82.
- 김영문·강태균, 2019, “소상공인의 경영관리능력과 경영서비스 지원제도 수용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86호, pp.215-233.
- 김예정, 2019, “창업의지 및 자금조달과 사업능력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포항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85호, pp.171-186.
- 김일광, 2018, “우리나라 자영업 업체 현황과 재무 특성에 관한 연구-산업별 비중 및 창·폐업, 생존

- 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제41권 제3호, pp.343-363.
- 고운성, 2016, “가족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투자성과”, 「정책연구」, 제2016-02호, pp.5-49.
- 남기정 · 이동명 · 진로, 2019, “비재무정보를 이용한 창업기업의 부실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4권제1호, pp.139-149.
- 남영호, 2006, “가족기업의 육성방안 : 장수기업을 중심으로”, 「신보리서치 겨울」, pp.3-29.
- 남영호 · 문성주, 2006, “가족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2006 통합경영학회 발표논문」.
- 남종석 · 김종호, 2018, “노동소득분배율이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3호, pp.975-996.
- 도영호, 2019, “중소기업의 보증부대출 효익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48권 제1호, 81-103.
- 박희상 · 김규배, 2019, “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자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제10권 제3호, pp.273-290.
- 서충원 · 신연수, 2016, “계속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pp.1543-1564.
- 선명옥 · 이우창, 2013, “소상공인의 업종별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0호, pp.305-322.
- 신동진 · 김문겸 · 김순철, 2019, “재무자원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37-257.
- 심상필 · 장운옥, 2019, “강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제도의 성과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4호, pp.179-190.
- 안태옥 · 한동희 · 강태원, 2019,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1호, pp.73-83.
- 원종하 · 정대현, 2017, “소상공인의 기업가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1호, pp.111-121.
- 유승호 · 한승호 · 임현철, 2015, “외식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서비스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식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2호, pp.23-42.
- 유시용, 2009, “연성정보와 정책자금 대출결정 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 pp.3768-3774.
- 이영주 · 양영석, 2018,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창업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 및 기대충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1호, pp.31-41.
- 이인화 · 이상직, 2018, “교육훈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5호, pp.55-61.
- 이희혁 · 유영진, 2019,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5호, pp.233-248.
- 전덕영 · 윤병섭, 2019, “창업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재무성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역할”, 「기업경영연구」, 제26권 제4호, pp.113-140.
- 전덕영 · 윤병섭, 2020, “소상공인 보증지원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0권 제4호, pp.31-66.

- 정경희, 2020, “초기 창업기업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pp.59-70.
- 조동환 · 김성호 · 최훈, 2016, “부산지역의 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국내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제39권 제1호, pp.299-322.
- 조준희 · 김찬중, 2010, “소상공인 창업의 재무성과 영향요인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pp.127-144.
- 채광기 · 윤병섭 · 하규수, 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6권 제3호, pp.85-107.
- 최태환 · 윤병섭, 2015, “지역소공인 육성 방안”, 「지역산업연구」, 제38권 제3호, pp.135-167.
- 서울신용보증재단, 2019; 2020, 「내부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소기업현황」.
- 통계청, 2020, 「기업생멸행정통계」.
- Akkaya, M., 2020, “Startup Valuation: Theories, Models, and Future, In Valuation Challenges and Solutions in Contemporary Businesses”, IGI Global, pp.137-156.
- Anderson, R. C. and Reeb, D. M., 2003, “Founding-family ownership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S&P 500,” *Journal of Finance*, Vol.58. No.3, pp.1301-1328.
- Angeles, I. T., Calara, M. S. P. and Guzman, A. B. de,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Microfinancing on Access to Finance and Growth of Microenterprises: Evidence from the Philippines”,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Vol.9. No.1, pp.1-16.
- Barth, E., Gulbrandsen, T., and Schone, P., 2005, “Family ownership and productivity: the role of owner-management,”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11(1-2), pp.107-127.
- Campbell, J. M. and Park, J., 2017, “Extending the Resource-Based View: Effects of Strategic Orientation Toward Community on Small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34, pp.302-308.
- Fairlie, R. W. and Robb, A. M., 2009, “Gender Differences in Business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Owners Survey”, *Small Business Economics*, Vol.33. No.4, pp.375-395.
- Karadag, H., 2017, “The Impact of Industry, Firm Age and Education Level on Financial Management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in Emerging Economies*, pp.300-315.
- Khan, E. A., Quaddus, M., Weber, P. and Geneste L., 2020, “Micro-Start-Ups Financial Capital And Socio-Economic Performance: In a Poor Financial Resource Setting”,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54. No.2, pp.95-107.
- Le, P. N. and Needham, C. R., 2019,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Ethnic Restaurant Businesses in Canada”, *Open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Vol.7. No.4, pp.1586-1609.
- Le Trinh, T., 2019, “Factors Affecting Startup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 Enterprises in Danang City”, *Entrepreneurial Business and Economics Review*, Vol.7. No.3, pp.187–203.
- Mateut, S., 2018, “Subsidies, Financial Constraints and Firm Innovative Activities in Emerging Economie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50. No.1, pp.131–162.
- Ngek, N. B., 2016, “Performance Implications of Financial Capital Availability on the Financial Literacy–Performance Nexus in South Africa”, *Investment Management and Financial Innovations*, Vol. 13. No.2, pp.354–362.
- Numan, A. A., 2019, “An In–Depth Analysis of the Small Enterprise Financing Division & Performance Evaluation of IDLC Finance Limited”, *United International University Internship Report*, pp.1–28.
- Omondi–Ochieng, P., 2019, “Financial Performance Trends of United States Hockey Inc: a Resource–Dependency Approach”, *Journal of Economics, Finance and Administrative Science*, Vol. 24. No.48, pp.327–344.
- Peter, F., Adegbuyi O., Olokundun M., Peter A. O., Amaihian A. B. and Ibidunni A. S., 2018,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Academy of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7, pp.1–10.
- Pinkovetskaia, I., Lebedev, A., Nuretdinov, I. and Rozhkov, M., 2019, “Activity of Small Enterprises and Microenterprises Modeling Based on the Entrepreneur Capital”, *Montenegrin Journal of Economics*, Vol.15. No.3, pp.155–166.
- Rusu, V. D. and Roman, A., 2020, “Starting New Business and Access to Finance: A Panel Data Investig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ncial Markets*, pp.117–131.
- Smith, B. F. and Amoako–Adu, B., 1999, “Management success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family controlled firms,”*Journal of Corporate Finance*, Vol.5. No.4, pp.341–368.
- Stucki, T., 2014, “Success of Start–Up Firms: the Role of Financial Constraint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23. No.1, pp.25–64.
- Suzuki, S. and Okamuro, H., 2017, “Determinants of Academic Startups’ Orientation Toward International Business Expansion”, *Administrative Sciences*, Vol.7. No.1, pp.1–20.
- Venkatraman, N. and Ramanujam, V., 1986, “Measur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Strategy Research: A Comparison of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4, pp.801–814.
- Walter, C. E., Veloso, C. M. and Fernandes, P. O., 2019, “The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 the Northeast of Brazil”, *Calitatea*, 20(172), pp.84–88.
- Westhead, P. and Marc, C., 1998, “Family Firm Research: The Need for a Methodological Rethink”,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Fall.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s Policy Fund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Enterprises

Jeon, Deok Young*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mall business policy funding support and business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companies.

[Design/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1,375 data that received guarantee support of start-up fund, start-up education, start-up consulting and follow-up management from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rom 2016 to 2019.

[Finding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ale founder, the higher the founder's age, the restaurant industry had a positive effect on sales amount. And the higher the total assets, the higher the rent, the more positive the sales amount. Second, the male founder, business location in eastern Seoul had a positive effect on net income amount. Also the higher the total asset, the higher the rent, the more positive the net income amount. Third, the male founder, business location in eastern Seou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turn on investment. Also the higher the rent, the more positive the return on investment.

[Research implications]

This study may inclu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enhancing business performance with small business owner's guarantee support. Fir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female entrepreneurs, policies on management support services centered on female business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vide intensive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small business owners eligible for support and expand funding and consulting support so that small business owners can continue to grow. Third,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ly should be sufficient for each industry, each area to strengthen management's capabilities, such as commercial area analysis services, business plan preparation, financing, and marketing strategies.

<Key Words> Family Enterprise, Small Business Owner, Policy Fund Support.
Business Performance

* Senior Expert Fellow,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